

21세기 유럽 해항도시의 롤 모델로서의 하펜시티 함부르크

† 정진성, *조현천

†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HK 교수

요 약 :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발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 하펜시티, 도시성, 지속가능성, 슈파이허슈타트, 도시건축대회, 역사성, 혁신성

ABSTRACT : Hamburg is going with the Hafencity Project to create new urban space for city's bustling central district. Hafencity will add an additional 155 hectares to Hamburg's central urban area, increasing its total area by some 40 percent. The new developments in Hafencity will be oriented towards the River Elbe and the great seaport. Its centre will have a close relation to water. They will b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a fascinating mix of residential accommodation, offices, cultural and leisure amenities, retail facilities and restaurants set in a framework of an elaborate urban layou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goals, the task of the Hamburg authorities and GHS (Gesellschaft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 and an urban planning ideas competition (draft masterplan).

Regarding of the new trend of the reurbanisation in Europe, the aim of this study will be to find out, in which way Hafencity is trying to develop the new city district as a model for the European inner city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유럽 도시의 경쟁력

- 아젠다21에서 "인류의 발전과 환경을 위한 대회"가 개최된 이후부터
- "지속 가능성" "도시성" 즉 "지속 가능한 도시 컨셉"
- 사람들은 도시의 공간 안에서 행복하니까?
- 도시의 공간에서 여유로움과 쾌적함, 때로는 활발한 교류, 발전과 번영의 가능성을 느끼니까?
- 시민, 근로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 일상적 삶과 문화적·여가활동의 공간이 주민들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니까?
- 도시의 경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국제적 산업기관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공간
- 공간의 역사적 의미 강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구역 창조
- 일상적인 생활 외 도시만의 특성을 지닌 도시적 그림
- 도시적 정체성이 확보된 뚜렷한 도시 이미지

독일의 도시 형태

The German Metropolitan System:
Integrated into global, European, national und regional networks („multi-tiered networks“)

21세기 함부르크시의 주요 목표

21세기 함부르크시의 주요 목표

- 국제성과 도시적인 성격이 더 강화된 함부르크
- 유럽의 해항도시의 격상강화
- 옛 것과 새 것의 하모니
- 친수공간의 친환경 그린도시 살기 좋은 도시
- 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표본

도심지와 하펜시티 연계의 방해물 -슈파이허슈타트-

- 1881년까지 관세자유도시, 비스마르크의 간섭으로 도시의 일부분만 관세자유구역으로 남음
- 물류창고인 슈파이허슈타트 (창고하우스) 의 건축
- 노동자구역이 있는 반드라홀 섬과 바록 스타일의 상인구역인 케허비더 섬의 거주지가 철거되었으며 약 2만 여명이 강제이동
- 1960년대에 주변에 새로운 항구시설이 도시 외각 엘베의 남쪽으로 이동
- 동시에 건설 인력과 도시의 기능이 주변으로 빠져 나감
- 하펜시티 지역은 더 이상 경쟁력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약 155헥타르의 지역이 무용지음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목표 - 21세기 유럽항구도시의 표본 -

전통 Tradition: 역사적 하펜시티



슈파이허슈타트 Speicherstadt

혁신 Moderne: 미래 하펜시티



엘브 필 하모니 Elbphilharmonie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목표

- Internationality 국제성,
- Urbanity 도시성
-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도심지와외의 소통 회복
- 낙후된 항구를 도심가에 연결, 고립된 옛 항구공간을 다시 도심지로,
-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되돌려줌
- 경제성장, 인구성장, 약 2만 여명의 새로운 거주자,
- 4만 여명이 새로운 일터에서 근무



도시건축대학의 선발전의 하펜시티 컨셉

독일-네델란드 합작팀 함부르크 플랜/지이스/크리스타인제/아스록

네 가지 목적 달성:

1. 세계문화유산인 슈파이허슈타트와 구도시의 상상분, 물과 공간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함
2. 8개의 다양한 구역의 조화: 물, 도심지, 일터, 거주지의 복합 사용도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
3. 도시 정체성이 모든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후속 세대들이 언제든지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공간의 자유 회복
4. 다른 8개 본선진출 팀의 작품을 항상 활용 가능하게 기본방향을 만들어 놓음



하펜시티와 도시성

- 도시성의 정의 (Urbanity)
- 1. 크다, 밀집되어있다.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혼존하여 사는 공간 (Lois Wirth, 1938)
- 2. 도시공간에서의 경험, 도시적 삶, 문화의 뚜렷한 각인이 삶의 형태에서 나타남
- 3.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과 문화 그리고 일터의 세계에서의 교차 (Graedtke, 2001)
- 4. 도시문화, 자급의 흥수 속에서 활난적, 문화적, 무엇을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 (Simmel)

하펜시티 프로젝트 투자액 (2025년까지)



하펜시티 개발과 함께 만든 소통의 장 - 개발 첫 단계부터 시민과의 소통 -

◇ 사례: 함부르크 도시개발 젠더의회 보고서 (1999-)

- ◆ 젊은 층의 요구 :
 - 물과 도심지의 자유로운 연계성
 - 쉬운 접근성, 자유로운 이동
 - 가까운 탁아시설, 학교, 놀이터, 청소년을 위한 열린공간
 - 자유로운 산책공간, 놀이공간, 체육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을 위한 쉼터
 - 친수공간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대신하지 못한다
 - 다양한 문화시설,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
 - 친환경적 주거지, 산업성에 의한 공간 최소화
- ◆ 노인층의 요구 :
 - 가까운 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 (시장, 문화센터, 병원, 은행)
 - 열린공간(신체로, 쉼터, 문화센터, 판공서)
 - 다양한 문화, 여가, 체육 시설
 - 시간에 안전
 - 친환경적 주거지,
 - 할자도시역역사성 보존
 - 도시의 정체성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하펜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의 3가지 컨셉
(Schubert, D., Revitalisierung, 2001)

1. 환경적 지속성의 컨셉
 - 자원절약: 옛 창고공간을 재생하는 기록이 외곽의 지역개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도 자원의 절약
2. 경제적 지속성의 컨셉:
 - 경제적 효율성, 기존의 인프라 다시 사용
 - 새로운 주민들, 상인들이 들어오며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들어오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환
3. 사회적 지속성의 컨셉:
 - 사회적 긴장상태 완화, 건강한 밸런스 유지
 - 불협화음을 평화적이며 신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의무

하펜시티 거주자들의 구조

◇ 넓은 사회적 층의 거주자 물색 (하펜시티 유향회에서 지속적으로 공개):

1. 하펜시티 내 직장을 둔 젊은 전문인력.
2. 자녀가 없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싱글 세대
3. 역사적 완자도시, 해양도시 특징과 역사에 능통하고 새로운 함부르크의 큰 그림을 제시 할 시민들, 50세 이상의 가정.

◇ 어떤 동기, 어떤 삶과 공간에 대한 이해? (2010 함부르크 통계자료)

- 싱글 주거자: 약 36%
- 아이가 있는 가정: 12%
- 외국인: 11%
- 나머지: 41%



하펜시티 선호도의 이유

1. 도시성 (urbanity)
 - 도시의 생동감을 직접 체험, 일과 거주를 함께 연결
 - 극장, 연극, 박물관 관람, 밤의 문화 쉽게 체험 (호프집에서의 1잔의 맥주)
 - 도시형 네트워크 형성, 도시의 프로그램에 능동적 참여
2. 중심지 (centrality)
 - 이바지: 함부르크에서 키일 (1시간 열차거리, 중앙역-하펜시티 800m)
 - 어머니: 일주일에 4일은 베를린 출퇴근
 -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등부터 뤼네부르크 하이데 출퇴근 (1시간 열차거리)
3. 입터-가정의 자연스러운 연계
 - 집과 입터의 빠른 이동, 집에서 점심식사해결, 밤에 다시 입터로 갈 수 있는 장점
 - 아이와 여성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공간
4. 차별화 (distiction)
 - 도심지 안, 물가에서의 삶
 - 차별화된 주거지, 주거지의 표본, 새로운 연구대상으로서의 하펜시티
 - 하펜시티 자체가 21세기 유입형 해양도시의 모델로서, 주거단지로서 차별성을 뒷받침

21세기 유럽의 창조적 도시



2007

- approx. 770 거주 단위
- 오토학교, 유치원, 도서관
- 역사적 선박 정주
- 리브로코트 하우스
- 2대 올린 하우스
- 1차 내보 개발권
- 신역

2008 (End)

- approx. 180 거주구역 2010까지
- 지역 코미트 Gymanischer Lloyd
- 운 나레바 Ulmer
- 스페셜 Spiegel
- 올림피아 하우스 Olympiastadion center hall
- 하펜시티 디자인 HafenCity University

2011 (End)

- approx. 1400 거주지
- approx. 13500 사무실 공간
- 45,000 - 102,000 관광객/하루
- 지하철 14개 정차 시작
- 200 거주구역 리베르타리아 (주요건 700명)
- 사이언스 센터 / 리브로코트

하펜시티를 통한 도심지 재발전

- 21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하펜시티를 통하여?
- 도심지의 이미지 상승
- 도시적 삶, 문화적 삶, 도시문화의 재발전
- 최근 들어 전문직이나 수입이 높은 집단의 도심지 이동현상
-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신도시 아파트 개념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
- 열린공간의 융합의 시너지 효과
- 함부르크에서 수 십년 동안 동안서 해왔던 도심지가 주거지로서 새로운 매력을 얻게 됨
- 하펜시티와 도심지 주변의 주거단지 선호, 시너지 효과
- 다른 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높은 위치의 주거선호도